

1

심리학은 무엇인가

1. 심리학에 대한 오해

2. 현대심리학의 태동

- 1) 현대심리학의 정의
- 2) 현대심리학의 배경

3. 현대심리학의 역사

- 1) 구성주의 심리학
- 2) 기능주의 심리학
- 3) 행동주의 심리학
- 4) 형태주의 심리학
- 5) 신행동주의이론 VS 스키너
- 6) 정신분석이론
- 7) 인본주의이론
- 8) 기타 심리학의 변성

4. 심리학을 바라보는 다섯 가지 관점

- 1) 신경생물학적 관점
- 2) 행동적 관점
- 3) 인지적 관점
- 4) 정신분석적 관점
- 5) 현상학적 관점

5. 심리학의 여러 분야

- 1) 임상심리학
- 2) 상담심리학
- 3) 산업심리학
- 4) 지각심리학
- 5) 학습심리학
- 6) 생리심리학
- 7) 사회심리학
- 8) 성격심리학

인간이 이룩해 온 학문의 범주는 크게 인간 자신에 대한 호기심인 내적 방향의 학문과 인간 외부 환경에 대한 호기심인 외적 방향의 학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내적 성찰의 기본과 근간을 이루는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심리학이란 학문이 무엇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심리학이 인간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하지만 다른 인문·사회과학들과는 다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심리학이 현대 과학으로 발전해온 기나긴 여정과 관계가 있다.

1. 심리학에 대한 오해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 물론 다른 사람만큼이나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 상태도 알고 싶어 한다. 이런 호기심이 사람들을 때로는 관상이나 점술 혹은 종교 등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고 때로는 초감각적인 현상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기도 한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이러한 흥미가 ‘마음’, 즉 심리에 관한 관심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호기심을 인간과 인간을 움직이는 ‘심리’에 대한 관심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사람들이 흔히 쓰는 ‘심리’란 단어는 어떤 사람의 ‘마음 속’,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 ‘마음가짐’, 어떤 사건이나 자극에 대한 ‘마음의 움직임’, ‘동기’, ‘성격’ 등과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 하지만 심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심리학에 관한 책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심리학에 호기심을 가지게 했던 내용들이 언급되지 않는다고 실망하면서 책을 덮어 버리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심리학을 다루고 있는 책에서 실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일 것이다. 우선, 심리학을 소개하거나 설명하는 책에서는 혈액형에 따라 사람들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유령이나 귀신에 대한 내용도 없다. 독심술에 관한 것도 없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최면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으며,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는다. 심리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학에 대한 선

입견이 엉뚱한 기대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심리학의 세계로 독자들
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다는 거창한 포부로 시작한 이 책은 환상이나 마술과 같
은 심리학의 세계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망과 지루함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목표는 독자들에게 심리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것이
다. 따라서 비록 생소하더라도 꾸준히 읽어 나간다면 현대심리학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심리학적 기초 지식
과 개념들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에 대해 가지는 환상적인 기대는 심리학이 과학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해
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과학은 한 번에 모든 답을 주지 않는다. 과학은 연구된 것에
대해서만 답을 줄 수 있다. 게다가 과학이 말해 줄 수 있는 지식은 과학적으로 증명
된 지식으로 제한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심리학은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선입
관과 편견이 많은 학문 분야이다. 대학생들이 심리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여러 편견
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심리학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거의 동
일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얼마나 심리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시각인지는 이
책의 목차만 살펴보다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생각
하는 방식이나 행동을 경험하고, 관찰하며 나름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심
리’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할 말이 있다. 사실 최소한 자기 자
신의 ‘심리’에 대해서는 자신이 최고 전문가일 것이다. 하지만 ‘심리’에 대해서 안다
는 생각은 ‘심리학’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합쳐지면서 엉뚱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심리학이란 학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 나아가 심리학이 보여주는 인간 심리에 대한 이론과 설명들도 일반인들이 알
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심리학을 제
대로 공부하고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혼란과 실망이 있을 수 있음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이 좋다.

2. 현대심리학의 태동

1908년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Ebbinghaus)는 심리학 개론서를 출판하면서
서문에 “심리학의 과거는 길다. 다만 역사가 짧을 뿐이다.”라고 적어 넣었다. 에빙

하우스는 인간의 자기 인식과 내면에 대한 성찰이 인류의 시작과 함께 출발한 장구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현대 과학의 한 분야로서 실험과 검증을 바탕으로 한 심리학의 역사는 짧다는 것을 강조했다.

1) 현대심리학의 정의



심리학을 상징하는 기호

심리학의 영어 단어 ‘Psychology’는 ‘정신’이라는 라틴어 ‘Psyche(사이키)’와 ‘학문’이라는 라틴어 ‘Logos(로고스)’의 합성어이다. 그리스어로는 ‘Ψυχη(프시케)’라고 쓰는데 영어 ‘psi’의 기원이 된다. 심리학 분야가 국제적 문장으로 ‘Ψ(프사이)’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Ψυχη(프시케)’라는 단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심리학에 대한 정의는 심리학자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심리학이 인간과 동물의 행동과 정신과정을 연구하는 과학”이라는 대략적인 정의에 큰 의미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심리학은 인간과 동물의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이다.”라는 정의가 널리 통용되었다. 낡은 정의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 정의를 주의해서 살펴본다면 심리학이란 학문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심리학은 인간과 동물의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이다.”라는 정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심리학이 과학이라는 것이다. 과학이란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얻어진 체계화된 지식을 말한다. 주관적이거나 사적인 지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식을 얻는 첫 단계는 관찰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측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관찰과 측정을 위해서 반드시 실험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험을 하게 되면 관찰과 측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찰하는 조건을 엄밀히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관찰 결과가 어떤 환경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체계화된 지식은 대개 법칙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것에 대한 법칙이나 원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이나 동물의 행동을 예언하고 통제할 수 있다. 또 예언이나 통제를 못하는 경우라도 최소한 관찰된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심리학의 정의에서 과학적이라는 말은 심리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예언하고, 통제하는 것이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목적이다.

심리학에 대한 정의에서 두 번째 핵심은 심리학이 행동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이다. 근래에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뇌 스캔 기술이 발달하면서 심리학에서 정신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1980년대의 심리학은 행동을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하는 과학이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심리학’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동을 연구한다는 것은 행동에만 머문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만들어내는 심리과정을 연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행동을 통해서 심리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이유는 심리상태, 즉 ‘마음’은 행동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제까지 1980년대에 널리 사용됐던 심리학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심리학의 정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심리학의 변화와 연구 성과들을 포함하기는 힘들 것이다. 학문에 대한 정의는 학문의 변화와 함께 바뀌게 된다. 심리학에 대한 정의 역시 시대와 과학 전체 범위의 변화를 반영하며 수정되어 왔다. 1980년대의 심리학은 행동과정을 강조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 심리학은 행동과정에 못지않게 정신과정도 강조한다. 이것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의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들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더욱 활발히 넓혀지고 있으며, 뇌 과학 및 인공지능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현대심리학에 대한 보다 정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은 인간 행동 및 이와 관련된 심리적·생리적·사회적 과정 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2) 현대심리학의 배경

심리학의 배경과 발전 과정에서 철학은 인간 심리와 심신 작용에 대한 의문을 제시 해주었고, 자연과학은 이러한 의문들을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기초를 마련해주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에빙하우스의 “심리학의 과거는 길다. 다만 역사가 짧을 뿐이다.”라는 말은 현대심리학의 배경이 장구한 과거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인간에 대한 내적 고찰과 호기심, 철학사상 등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말한다.

(1) 철학적 배경

심리학에 관한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서양에서는 기원전 그리스 철학, 동양에서

는 중국과 인도의 고대 철학사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공통점은 객관적 검증보다는 직관과 논리를 사용하여 인간의 인식이나 지각 혹은 심리과정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다. 철학이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가졌던 가장 오래된 호기심은 심신관계론이다. 심신관계론은 인간의 마음과 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하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말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 플라톤(Plato, BC 427~347)은 심신이원론을 주장했다. 그는 인간의 지식은 모두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며, 마음은 신체와 별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플라톤의 관점은 현대심리학에서는 형태주의 심리학과 정신분석적 관점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플라톤의 제자이기도 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 384~322)는 심신일원론을 주장했다. 그는 마음과 신체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할 뿐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신체에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이 영혼이라고 주장하면서 생명체 속에 있는 영혼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철학적 사유를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은 기독교 신학이론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으며, 현대심리학에서는 기능주의 심리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견고함과 탁월함은 중세시대까지 주류를 차지하며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았다(Brett,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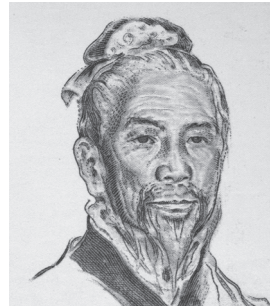
서양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초기 철학과 인식론, 심신관계론에 관한 견해를 확립해 갈 때쯤, 동양에서는 제자백가(諸子百家)라고 불리는 다양한 철학적 사유들이 대두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심리학적 관점에서 눈여겨 볼 것은 노장사상(老莊思想)에서 장자(莊子, B.C. 4세기경)가 제시한 화두이다. 장자는 낮잠을 자다가 자신이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다. 잠에서 깬 장자는 인간인 자신이 나비가 되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장자

꿈을 꾸는 것인지, 나비인 자신이 인간이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인식의 혼란은 인간이 인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후 현대심리학에서 인지심리학적 관점과 무의식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게 된다.

서양에서는 주류를 이루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심신일원론이 르네상스 시기를 거쳐 중세 이후부터는 변화를 겪게 된다. 데카르트(Descartes, 1596~1650)는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근대철학을 탄생시킨 학자이다. 데카르트는 심신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신체는 유기체라서 영혼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신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으며 송과선(pineal gland : 제3뇌실 후부에 있는 작은 내분비기관, 7세까지 발달하여 성장 촉진에 관여하다가 점차 도태되어 없어짐)을 통해서 영혼과 신체가 상호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베이컨(Bacon, 1561~1626)이라는 철학자는 경험주의를 주장하면서 실험을 통한 검증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베이컨은 신념에 부합하는 사건들을 선택적으로 주목하고 기억하려는 경향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회의(懷疑)주의를 주장했다. 베이컨은 관찰자들에 의한 증명과 체계적 관찰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면서 현대 과학적 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Brett, 2009).

베이컨 이후, 스피노자(Spinoza, 1632~1677)는 다시 심신일원론적 측면을 수정한 심신양면설을 주장했다. 심신양면설은 마음과 몸은 종이의 양면과 같아서 동일한 실체이면서 동시에 양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스피노자 이후, 라이프니츠(Leibniz, 1646~1716)는 심신병행론을 주장하면서 마음과 몸은 별개의 실체지만 기능상 병행한다는 이원론적 입장을 주장했다.



데카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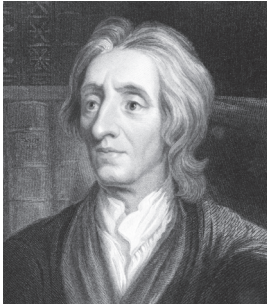
베이컨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로크



칸트



헤겔

이러한 서양 중세 이후의 인간 심신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논쟁은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이황(李滉, 1501~1570)과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의 사칠논변(四七論辨)이다. 이황과 기대승은 1559년에서 1566년까지 8년여 동안 유학에서 제시한 사단칠정(四端七情, 심리학에서 말하는 도덕성의 발달이나 인식론 등과 관련된 주제들)에 관련한 논쟁을 통해서 인간 심리에 대한 고찰을 시도했다.

근대철학으로 넘어오면서 서양에서는 로크(Locke, 1632~1704)에 의해서 관념연합설이 제시되었다. 관념연합설에서는 인간 심성은 백지(tabula rasa)와 같아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로크의 이러한 견해는 인간의 마음은 정신과정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경험론적 주장으로 현대 교육학과 학습심리학 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후 칸트(Kant, 1724~1804)와 헤겔(Hegel, 1770~1831) 등의 철학자들은 선험철학(先驗哲學)을 주장했다. 선험철학은 인간의 인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색함으로써 마음에 존재하는 것과 객관적 세계에 존재하는 것 사이에 발생하는 의문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Brett, 2009).

(2) 자연과학적 배경

심리학은 자연과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19세기 초 유기체의 기능에 머물렀던 생리학자들의 관심이 인간 심리와 생리과정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이제까지 철학적 사유의 범주에 머물러 있던 심리학은 본격적으로 과학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앞서서 철학자로 분류되었던 데카르트는 유기체론을 통해서 심리학에 대한 자연과학적 배경을 최초로 제공했다. 유기체론은 르네상스 이후 모든 생명현상을 영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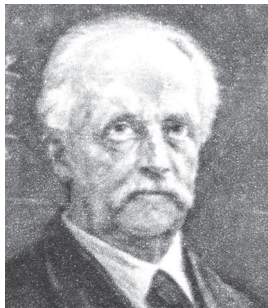
의 작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인체 해부를 통해 신경생리학적 지식들이 축적되면서 제기된 이론이기도 하다. 데카르트는 최초로 반사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반사를 자극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으로 파악했다(Brett, 2009).

이후 19세기 독일의 뮐러(Müller, 1823~1900)는 신체에서 신호들이 신경을 따라 전달하는 과정인 신경에너지 전달 원리를 밝혀내기도 했다. 또한 헬름홀츠(Helmholtz, 1821~1894)는 눈과 귀의 감각 수용기로 들어오는 정보 인식 속도를 측정하면서 신경 충격의 전이 속도에 대한 측정과 해석 과정을 밝혀내었다. 독일의 물리학자인 페히너(Fechner, 1801~1887)는 정신물리학이란 용어를 만들었다. 정신물리학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반사의 신경학적 기제와 감각의 물리학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페히너는 지각과 같은 정신적 사상을 정확히 측정하는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정신물리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현대심리학의 성립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정신물리학에 대한 연구는 웨버(Weber, 1795~1878) 등의 학자들로 이어져 현대 생리심리학이나 지·감각 심리학 분야로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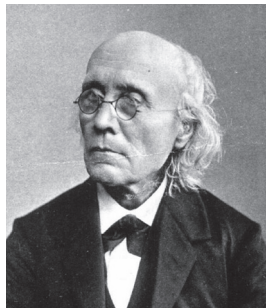
생리학자들뿐만 아니라 넓게는 다윈(Darwin, 1809~1882)의 진화론도 심리학 발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다윈은 1859년 종의 기원에서 자연도태설에 근거한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심리작용이나 생명현상을 신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다윈의 사촌이기도 한 골턴(Galton, 1822~1911)은 진화론에 관련된 연구를 이어가면서 인간에게 유전적 특질에 따른 개인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람들이 가진 특질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면서 최초의 심리검사 제작을 시도하게 된다. 지문검사와 회귀법칙 등,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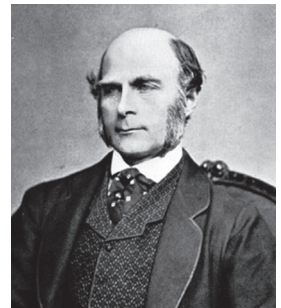
뮐러



헬름홀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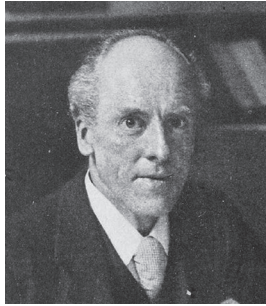
페히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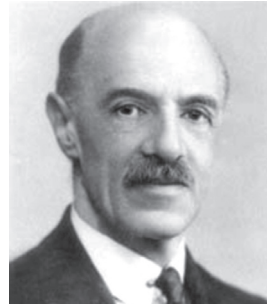
골턴



카텔



피어슨



스피어먼

찰 결과로 얻어진 여러 이론을 제안했다(Brett, 2009).

골턴의 연구 업적들은 이후에 개인차 심리학에 영향을 미치며, 카텔(Cattell, 1903~1998)에 의해서 미국에 소개된다. 골턴의 연구 결과에 고무된 카텔은 1890년 시각, 청각, 신체적 기술 등 다양한 검사를 기술하는 데 사용된 정신검사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들어내었다. 카텔은 1895년에는 미국심리학회 회장이 되었으며, 심리학자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의 회원이 되었다. 피어슨(Pearson, 1859~1936)과 스피어먼(Spearman, 1863~1945) 등의 학자들은 자료들을 정리하기 위해 상관관계 기법을 개발하였는데, 이것은 현대심리학의 과학적 연구 방법에 크게 기여했다(Brett, 2009).

3. 현대심리학의 역사

지금까지 심리학의 정의와 배경이 되는 철학과 자연과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 심리학이 과학으로 태동되어 현대적인 학문으로 성립하게 된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자. 한 학문의 정의는 그 학문의 역사를 통하여 응결된다. 학문은 발전되는 과정에 따라 학파들이 잇달아 일어나는 시기가 있는데, 이러한 학파들은 그 학문의 정의를 놓고 경쟁을 벌인 결과로 부흥했다가 소멸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문의 정의를 어떤 학파가 주도하는가는 곧 학문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심리학은 1870년대 구성주의라는 심리학파를 통해서 태동하게 된다.

1) 구성주의 심리학

구성주의 심리학(structuralism)은 1879년부터 1930년 정도까지 독일에서 주도한 심

리학파를 일컫는다. 구성주의 심리학은 최초의 과학적 심리학을 탄생시켰다. 구성주의 심리학, 즉 현대심리학의 창시자는 빌헬름 막시밀리안 분트이다.

(1) 분트



분트

생리학자이기도 한 분트(Wundt, 1832~1920)는 최초로 심리학을 철학이나 생리학의 하위 영역이 아니라 독립된 학문 분야로 연구한 사람이다. 분트는 1862년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최초로 인간과 동물의 정신에 대한 심리학 강의를 시작하였고, 1874년에는 생리 심리학 원리(*Principles of Physiological Psychology*)를 출판했다. 이 책에서 사용된 ‘생리’라는 용어는 현대의 생리심리학 주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붙은 것이 아니라 생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연구 방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Brett, 2009).

분트는 1879년 라이프치히대학교로 옮겨와 최초의 심리학 실험실을 마련했다. 1879년 라이프치히대학교의 작은 연구실에서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 드디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분트는 자신의 심리학에 대해서 ‘실험심리학’, ‘의식심리학’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최초의 과학적인 현대심리학을 탄생시킨 학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분트는 평생에 걸쳐서 53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책과 논문을 저술하였으며, 심리학에 대한 선풍적인 인기를 조성했다. 분트에게 자극을 받은 학자들과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 증가하면서 1900년까지 북미 지역에만 40개가 넘는 심리학 실험실이 만들어졌다(Brett, 2009).

분트는 뉴턴의 원자론에 영향을 받아 인간의 의식도 원자처럼 쪼개지지 않는 근원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여러 가지 의식 요소들이 결합되어 정신을 구성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분트는 의식의 구성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성법(introspection : 조용히 자신의 의식을 살펴서 보고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분트가 제안한 내성법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관찰자는 내성법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먼저 결정한다. 둘째, 관찰자는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상태를 만든다. 셋째, 관찰을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 차례 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실험 조건은 통제된 자극의 조작에 따라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적’이라는 거창한 말로 시작한 심리학이 허술해 보이는 내성법에 기초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당시로서는 조용히 자신의 의식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말고는 심리내적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내성법의 허술함은 곧 구성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내성법은 관찰한 이후의 보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소위 말 잘하는 사람들이나 표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로 인해서 왜곡될 수 있다고 비판받는다.

하지만 내성법은 여러 가지 심리학적 연구와 관찰에 기여하기도 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psychanalysis)은 자유 연상(free association)이라는 자기 내면 보고에 기초하고 있고, 꿈이나 실언(失言) 같은 내적 상태나 상황에 대한 보고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내성법의 약점은 주관적이라는 것인데, 주관성이 인정되는 정신질환이나 심리상담 혹은 심리치료와 같은 임상적 장면에서는 내성법이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방법으로 살아남아 있다.

(2) 티치너

티치너(Titchener, 1867~1927)는 영국에서 독일로 유학 온 분트의 제자이다. 번역가로도 활동하였으며, 분트와 자신의 심리학적 성과들을 종합하면서 ‘구성주의 심리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장본인이기도 하다. 티치너는 분트와 마찬가지로 의식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파악하고, 기본 요소들 간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이 심리학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했다. 또한 내성법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기도 했다(Brett,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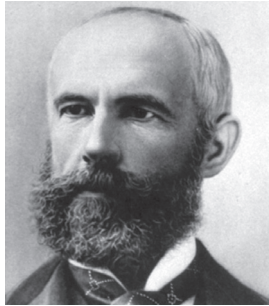


티치너

1881년에는 독일에서 티치너와 분트를 중심으로 최초의 심리학 학술지를 창간하였으며, 1900년대에는 코넬대학교의 교수로 부임하여 초기 미국심리학회에 구성주의 심리학을 전파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티치너는 코넬대학교에 임용되기 전 영국의 옥스퍼드대학교 교수 임용에서 탈락했다는 것이다. 전통을 자랑하던 당시 영국 대학들은 심리학이라는 신생 학문의 파급력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이러한 영국의 분위기는 1936년도까지 심리학과의 설립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영국이 유럽에서도 비교적 심리학의 전파나 발전이 더딘 나라가 된 이유가 되었다. 더불어 유럽에서 홀대받던 심리학이 미국으로 건너가 번

창하는 계기가 되었다. 1927년 티치너가 사망하면서 구성주의 심리학도 쇠락해 갔는데, 이후 구성주의 심리학은 독일에서 형태주의 심리학이 태동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된다(Brett, 2009).

(3) 홀



홀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홀(Hall, 1846~1924) 역시 분트의 제자이자 동료라고 볼 수 있다. 독일에서 분트에게 심리학을 배우고 미국으로 돌아온 홀은 1892년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미국 최초의 심리학 연구실을 설립했다. 따라서 미국에서 심리학을 가장 먼저 연구한 사람은 홀이었고, 1892년 총회원 27명의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가 설립되었을 때에는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896년에는 홀이 주축이 되어 미

국 최초의 심리학 학술지를 창간했다. 홀 역시 구성주의 심리학자로 인간 의식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를 찾아내는 것을 심리학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책을 읽을 때 의식에서 생겨나는 내용들을 관찰해서 기록하고 그 내용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파악한 후, 기본적인 요소가 어떻게 결합해서 책을 읽을 때 생겨나는 의식을 구성하는지를 알아내려고 했다.

구성주의 심리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심리학의 연구 대상이 의식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구성주의 심리학은 심리, 즉 마음을 다루는 학문에 자연과학적인 사고방식과 관찰을 중요시하는 과학적 방법을 더한 것이다. 이 당시 근·현대 철학자들도 인간의 마음을 논리적으로 사색하고 연구하고 있었는데, 구성주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을 실험실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연구 대상이라는 용기 있는 견해를 주장하였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러한 구성주의 심리학자들의 노력을 통해 현대심리학은 직관과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철학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과학으로 인정받는 독립된 학문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2) 기능주의 심리학

심리학은 새로움과 생동감이 넘치던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심리학이 연구되던 1890년에서 1930년 사이에 기능주의

(functionalism) 심리학이 대두하게 된다. 철학적으로는 베이컨의 경험주의에 영향을 받았으며, 심리학을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데도 관심을 가진 학파이다.

(1) 제임스

제임스(James, 1842~1910)는 하버드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이며 교육학자였다. 제임스는 하버드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중 철학과로 옮기게 되었으며 생리학이나 중세 철학 그리고 점성술이나 텔레파시, 강신술, 천리안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여담이지만 문헌분류에서 10진 분류를 만든 듀이가 심리학 관련 책을 점성학이나 운명론 등과 비슷한 범주로 분류하는데, 제임스의 다양한 관심 분야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제임스

제임스는 심리학이 의식의 흐름에 따른 의식작용 과정과 기능을 연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임스도 인간 의식이 심리학 연구의 핵심이라는 데는 구성주의자들과 의견이 일치했다. 하지만 내성법이라는 허술한 방법으로 의식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리학은 의식의 기능을 탐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임스의 이러한 견해는 이후, 의식의 기능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기능주의 심리학’이라고 불리게 된다.

제임스는 1875년 하버드대학교에서 미국 최초의 심리학 강의를 개설하였으며, 1896년에는 심리학 원리(*The Principles of Psychology*)라는 최초의 심리학 개론서를 출판하기도 했다. 다윈의 자연도태설에 영향을 받으면서 신체가 적응적으로 변화하듯이 마음도 적응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마음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탐구하는 데 집중했다. 미국의 실용주의 사상에도 영향을 받았으며, 심리학 관련 연구가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심리학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내성법이 아니라 행동관찰법을 지지했다.

제임스가 주도한 미국의 기능주의 심리학은 듀이(Dewey, 1859~1952), 에인절(Angell, 1869~1949) 등의 학자들에게 이어진다. 듀이는 1886년 심리학(*Psychology*)이란 교재를 출판하였으며, 교육심리학과 실용주의 심리학을 주창했다. 듀이와 에인